

건강한 도시 만들기 주력하는 건강한 신문

이상기 기자 · sglee@kpf.or.kr

원주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건강도시다. 원주시는 2005년 4월 7일 국내 처음으로 원주를 건강도시로 선포하고, 원주시민 건강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수년 간 원주시가 WHO가 정하는 건강도시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역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결과다. 올해도 '시민 100km 걷기운동' 등 건강도시 원주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원주의 지역신문, 원주투데이가 함께 하고 있다. 원주지역 유일의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가 지역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창간이후 십 수년 간 노력해온 성과는 실로 커 보인다.

1년간 128건 기사, 화상경마장 막아내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말 원주 등 몇몇 지역 도시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막아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주투데이의 끈질긴 추적 보도가 지역민의 여론을 선도하고 전달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원주투데이는 2005년 12월에 화상경마장을 원주 등 지역 도시에 설치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인지한 후 근 1년여에 걸쳐 128건의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왔다.

당시 '바다이야기' 등 사회적으로 사행성 오락 산업의 폐해가 적잖았을 뿐 아니라 화상경마장은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 지역민의 폐해가 불을 보듯 자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1월 29일 농림부는 화상경마장 백지화 선언을 했고, 이 날은 '원주 시민운동의 날'로 기념될 만큼 원주의 시민 사회단체들의 성과를 드높인 사건이었다.

지역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원주투데이가 지역

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선도한 예는 또 있다. 2004년 이후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풀뿌리 문화운동의 일환인 이 사업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 원주에 “외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면적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역 내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운동은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의 시한을 정해 놓고 한 권의 책을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에서 릴레이 독서를 하지는 문화 캠페인이다. 1차년도인 2004년도에 3만 명, 2005년도에 3만 명이 참가하다가 2006년도에는 원주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호응하에 6만 5,000명의 원주시민이 참여하는 대형 문화운동으로 발전했다. 책은 원주시내 각계 각층의 대표자가 모이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언론(원주투데이), 시민단체(생명원주21), 도서관(원주평생교육정보관) 3자 협력에 의해 일구어내는 대표적인 지역 공익사업이다.

오원집 대표는 “이러한 운동은 지역민의 정신 건강을 도모하고, 같은 책을 읽고 갖게 되는 각기 다른 생각을 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 지역 내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메워 감으로써 도시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원도 내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원주시가 계도지를 철폐한 것도 이 지역신문의 노력 덕분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 지 여부”를 삽입해 계도지를 불인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 법률이 제정되기 수년 전에 이미 계도지를 완전히 없앴다. 강원도 내 타매체 및 타지자체의 눈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원주시의 이러한 결단을 이끌어 낸 것은 지역 내에서 원주투데이의 영향력이 어느 매체보다도 컸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해석된다.

시민주 70%, “시민이 주인인 신문”

오 대표는 “언론은 자사 이기주의, 각종 권력, 개인적 친소 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은 시민이 주인인 원주 시민의 신문이다. 언론의 ‘건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간계약 광고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펜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시민단체에서 기고한 “편집국장 사퇴하라”는 반박문을 독자마당에 실어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주투데이의 지면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원주 시민의 것이다”라는 오원집 대표 등 원주투데이 구성원들의 신념이 바탕에 깔린 사례이다.

원주투데이는 소유주식의 70% 이상이 시민주로

지역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원주투데이가 지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선도한 예는 또 있다. 2004년 이후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지난해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왼쪽에서 앞줄부터 김선기 기자, 고효정 자, 이기영 기자, 김재용 팀장, 최인숙, 김민호 기자, 김종일 과장, 이상용 차장, 이영주 기자, 정현주, 허연숙 기자
뒷줄 안광범 주임, 김미희 오원집 대표, 신승훈, 김건아, 안현경, 조미옥

이루어져 있다. 또한 발행부수는 1만 부를 찍고 있으며, 16면과 8면으로 이루어진 섹션 편집으로 24면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하고 있다. 1만 부 중 유료독자는 6,000부 정도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8억 원이었다. 월 광고수입이 3,500~4,000만원, 구독료 수입이 월 1,500~2,000만 원, 출판인쇄수입 월 500만 원으로 일구어낸 성과다.

지역신문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 대표는 이러한 전반적인 경영상의 수치보다 지금도 꾸준히 매월 평균 22명의 자발적 신규 독자가 늘고 있는 것에 강한 의미를 두고 있다. 22명이라는 수치는 원주투데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희망의 숫자인 셈이다.

원주투데이의 내일은 원주의 일간지

원주투데이는 흥성신문, 옥천신문 등 1980년대 말 창간된 지역신문 1세대에 이어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지역신문 2세대의 대표주자 중 하나이다. 1995년 10월 창간할 당시에는 원주교차로와 통합 발행되었다가 1996년에 원주교차로에서 완전 분리해서 발행되기 시작했다. 창간 당시 '영서

신문'이라는 제호에서 창간 5주년이 되는 2000년도부터는 '원주투데이'로 제호를 변경하여 주 2회 발행을 했다. 오 대표는 "당시에는 '투데이'라는 영문제호를 쓰는 것에 대한 지역 내 반감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지역지라고 해서 영문을 쓰지 말라는 법 없잖은가.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자 했다." 그 이후 여러 지역신문들이 '투데이'라는 제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주투데이의 선구적인 시도는 지난해 신문판형을 타블로이드 대판에서 국민일보 판형인 콤팩트형으로 전환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판보다는 콤팩트형이 더욱 부드럽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 지역주민에게 신문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에 참가한 후 미국의 지역지 중 대부분이 이러한 판형을 사용하고 있던 것에서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

원주투데이는 다음해부터 주 3회 발행의 일간지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 올 6월 10억 증자를 달성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원주는 30만 인구가 강원도 내 최대 인구도시이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인구 50만

의 기틀이 마련된 곳이기에 이러한 원주투데이의 포부는 신빙성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원주투데이가 목표하는 것은 '원주의 일간신문'이다. 철저히 원주에 기반을 둔 지역신문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목표는 경영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산간오지 등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강원도의 지리적 조건하에서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려는 시도는 자칫 고비용 저효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의 나침반, 원주의 사랑방, 원주의 게시판'이라는 편집방향은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일간지 전환 후 전체지면의 30%를 시민에게 할애하여,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보는 원주시민 모두가 주인되는 신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원주투데이의 내일이다.


21명의 직원, 3년 동안 이직자 없어

이러한 원주투데이의 끊임없는 사업 모색은 지역포털을 위한 IT사업에 집중되기도 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인터넷영상사업부'를 설치하고 비교적 열악한 강원도 내 IT업계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미 원주지역 내 오프라인 콘텐츠를 확보한 원주투데이가 온라인에서도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IT업체로 성장할 지도 지켜볼 만 한 일이다.

현재 원주투데이에는 21명의 직원들이 있다. 9

명의 기자가 취재와 편집을 맡고, 편집 디자인, 독자관리부, 인터넷영상사업부, 마케팅사업부 등에 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오 대표는 "지역신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력의 확보다. 이제 우리는 그 고민에서는 해방된 것 같다. 대표를 맡은 지 3년 동안 아직 이직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원주투데이가 괜찮은 일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럼에도 그는 강원대에 재직하던 자신을 불러온 심형규 회장과 약속 중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것이 '기자들의 보수를 최고로 해준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적은 보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다.

원주투데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오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서고 떠들어서..."라며 잠시 주춤하더니, "관계자들이 지역신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론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와서 보고 느껴야 한다"며 이내 빠있는 조언을 덧붙였다. 또한 지역신문 간에도 격차가 있으니 지역신문 지원의 주체들이 각 지역신문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역신문 스스로는 공통의 문제점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주투데이의 내일을 우리 지역신문의 내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원주의 나침반, 원주의 사랑방, 원주의 게시판'이라는 편집방향은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일간지 전환 후 전체지면의 30%를 시민에게 할애하여,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보는 원주시민이 주인되는 신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원주투데이의 내일이다.
